

중국의 산둥성 - 구미 무역 제한으로 수출 시장 다각화 전략

중국의 산둥성(山東省)은 구미로 수출하려던 섬유 제품의 일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수출 수량이 제한을 받게 되어, 산둥성 내 섬유 기업의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수출 시장 다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차이나 텍스(China-Tex)에 의하면 구미 시장은 산둥성에게 섬유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다. 2005년 제1/4분기~제3/4분기에 구미로의 섬유 제품 수출은 78억 9천만 달러였으며, 이런 규모는 산둥성 수출 전체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4/4분기에는 구미와의 협의에 따라 2억 달러만큼 줄었다.

이와 같은 수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장 다각화 전략을 내놓은 산둥성에서는 중점적으로 우선 주변국이나 주변 지역인 일본, 한국, 동남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중계 무역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고, 동시에 한국이나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략적 지위를 중요시하고, 산지 규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한국 등 주변국이나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유리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세안(ASEAN)에 대하여는 중국·아세안 무역 협정의 틀 속에서 그 이점이나 우대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의 잠재력을 살림으로써, 동남 아시아로의 수출 확대를 유리하게 추진한다. 또한 섬유 수출의 주요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중·저급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고급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산둥성에서 생산된 제품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더욱이 해외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둥성은 2006년부터 파나마, 호주,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무역 박람회나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산둥성 외경무청(外經貿廳)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